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8, 2017 Vol. 578



이번 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들. (왼쪽부터) 장세일 사무총장, 송민호 부서기, 서명성 서기, 김억희 장로 부총회장, 박성규 총회장, 원중권 목사 부총회장, 조인목 회록서기, 김동진 부회록서기, 데이빗 서 영문 회록서기, 한광호 회계.

해외한인장로회 박성규 총회장 추대

제42회 총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 주제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2회 총회에서 박성규 목사(서노회, 주님세운교회)가 총회장에 올랐다.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그는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며 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원중권 목사(중남미노회, 아르헨티나 소망교회)가 선출됐다.

이번 총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란 주제 아래 열렸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억희 장로, 서기에는 서명성 목사, 부서기에는 송민호 목사, 회록서기에는 조인목 목사, 부회록서기에는 김동진 목사, 영문회록서기에는 데이빗 서 목사, 회계에는 한광호 장로, 부회계에는 박철원 장로 등이 선임됐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대화법 배워요"


본지와 ABC상담대화교육원이 함께 아름다운 대화 강좌를 열었다.

본지와 ABC상담대화교육원이 공동으로 "아름다운 대화 기술" 강좌를 5월 16일 본지 컨퍼런스룸에서 열었다. 오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이뤄졌고 정신과 전문의인 여천기 박사와 상담전문가인 여명미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는 예수님 식 대화법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자신 관리, 경청, 심정 공감, 격려, 분노 표현 등에 대한 ABC 대화기술을 소개했다.

한편, 5월 25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화 기술과 관련한 전문 지도자를 양육하는 강좌가 4차례 걸쳐 개최된다. 20시간 강의를 수강하면 대화지도자 수료증도 발급된다. 비용은 총 200달러다. 문의) 213-739-0403

"북한 붕괴는 필연이다"

통일선교 컨설테이션에서 김요한 목사 강의

"북한 붕괴는 이제 단순한 예측이나 꿈이 아니라 필연이며 역사적 흐름입니다."

통일선교전략협의회가 개최한 통일선교 컨설테이션에서 강사로 나온 김요한 목사의 발언 중 일부다. 15일부터 16일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 목사는 "북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란 주제 강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균열"이라고 단언했다. "권력, 외교, 군사,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최고를 달리던 구 소련도 주민들의 내부 균열을 막지 못해 붕괴됐고 현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우리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김정은 지도 체제의 안정 여부를 북한 문제의 중요한 척도로 보지만 사실 그것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하는 이유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등을 위해서라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현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체제 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의 생계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북한 정권은 "이런 어려움이 미국의 압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단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으로부터 안전해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민들이 생활고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이 증강된 것을 홍보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

김 목사에 따르면, 북한 체제를 이끌고 있는 씽크탱크는 매일 북한 내부 상황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체 평가로도, 김일성 당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던 체제응집력은 현재 1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김 목사는 "북한 붕괴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 사이에 남한의 체제를 동경하는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의 체제통제력은 급강하하고 있다. 경제도 불안하며 사회 갈등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 통일의 예를 들며, "서독교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통일 펀드를 조성하며 준비했고 결국 어느 순간 통일이 됐을 때 사회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교회도 통일이 임박했음을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통일선교전략협의회 통일선교 컨설테이션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강의했다.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를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예장 미주합동총회가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정기총회 중이다.

미주합동, WKPC와 통합 놓고 분열돼

두 교단 같은 기간 동안 LA 한인타운 내에서 별도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분열됐다. 본국 예장합동 출신 혹은 총신대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이 교단은 이민교회 역사 이래 수차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다 이번에는 세계예수교장로회(WKPC)와의 통합 논의 중 그에 대한 찬반이 나뉘며 결국 교단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

이 모든 논쟁의 뿌리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장합동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미주에서 이민목회를 시작하자 1974년 제59회 총회에서 미주노회를 조직했다. 곧이어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는 미주대회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그러나 미주대회 불법 분리 사건을 비롯해 노회 내에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자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미주노회를 폐지해 버린다. 이 과정에서 하루 아침에 소속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은 합동해외총회, 재외합동총회, 미주합동총회 등의 교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 교단들은 이후 통합과 분열을 계속했는데 이 와중에 예장합동은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미주노회를 복구하기로 결의했다.

노회 복구 과정에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2013년 제37차 총회 당시 분열된 WKPC 회원들이 주요 역할을 감당했다. 현재도 WKPC는 예장합동의 미주노회와 거의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2010년 합동미주총회와 통합한 미주합동총회는 2014년 해외합동총회와도 통합을 이뤄냈다. 그러나 근 3년 만에 WKPC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갈리며 분열된 것이다. 미주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WKPC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WKPC는 이미 미주합동 소속 고귀남 목사(서부노회장, LA언약교회)를 WKPC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미주합동과 통합총회 형식으로 총회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자 두 교단은 불미스러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총대들에게 교단 선택의 자유를 주기로 합의하고 별도로 총회를 열었다.

한편, 미주합동 내에서는 반대 입장이 강했다. 8개 노회 가운데 5개 노회가 반대, 한 노회가 양분, 2개 노회가 찬성했다. WKPC와 통합하면 아무래도 미주합동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예장합동 소속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법 절차의 문제와 WKPC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에서 가주노회(노회장 한선희 목사)는 "WKPC의 주인물이 이전 교단에서 면직된 자이며 현재도 재판 중"이라 주장하며 통합을 반대했다. 동북노회(신청기 목사)는 "우리 총회가 숫자는 적으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뉴욕노회(옥영철 목사), 중남부노회(김광석 목사) 등은 찬성 입장이었다.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합동총회는 WKPC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이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총회 주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총회"였다.

한편, WKPC는 동일한 기간 나성 열린문교회에서 제41차 총회를 "하나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주합동의 박등배 총회장을 비롯해, 고귀남 목사 등이 참석했다. 고 목사는 환영사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양보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규보 WKPC 총회장은 "이 거룩한 연합은 사탄의 질시로 쉽지 않았으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분을 걸고 매진하여 새로운 연합전선을 형성하도록 힘써주신 양측 총회의 임원과 모든 총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WKPC 총회에는 한국 예장합동의 김선규 총회장, 김찬곤 GMS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웨스트민스터 신임총장에 한인 1.5세 김은일 교수 선임

남가주 에스콘디도에 있는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김은일(영문명 조엘 김) 교수가 신임 총장에 선임됐다.

9살 때 미국에 이민온 1.5세인 김 총장은 UCLA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부터 이 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사역해 왔다. 미국 주류신학교에서 한인이 총장에 오른 것은 최초다.

그는 미국장로회(PCA) 소속 목사로서 다양한 한인교회에서 섬긴 경험도 갖고 있다.

7월 말에 은퇴하는 갓프리 총장은 김 총장의 취임과 관련해 "우리 학교는 서부 지역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를 위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펜실베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서부 지역 분교로 설립됐다가 1982년에 독립했다.



김은일 총장
ⓒwww.wscal.edu 웹사이트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5월 정기예배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독한의사협 정기예배 및 보수교육 실시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가 5월 14일 오후 소망장로교회에서 5월 정기예배와 한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한의사이며 약사인 유창범 목사가 설교하고 간증을 전했으며 이혜원 권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마가교회 실버음악교실 학생 7명이 기타로 특송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4시간 실시된 보수교육에서는 김용훈 박사가 중풍 치료에 관한 50년 노하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협회는 어머니 한의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이 협회는 오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필렌의 나눔동산수양관에서 영성수련회를 연다. 한의사와 한의대학 재학생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213-598-6117

발달장애인 위한 제31회 사랑의 마당 축제

남가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6개 교회와 31개 선교단체가 연합해 제31회 사랑의 마당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도 엘몬테에 있는 위티어 내로우 레크리에이션 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미주 최대의 발달장애인 야외축제로 자리잡았다.

18세 이전에 장애가 확인된 발달장애인(자폐, 다운증후군, 정서장애 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배, 게임 시간 등이 있다. 각 교회와 단체가 준비한 음식 장터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일인당 5달러이다.

이 행사는 사랑의 마당축제 조직위원회, ANC온누리교회, 해피빌리지 등이 함께 준비한다.

문의) 562-229-0001

기윤실,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노력해 온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오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신의 자녀와 가정은 마약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 아래 빌 송 LA카운티 셰리프 커맨더와 현직 셰리프 마약전담반 요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인터네셔널 대학교(3130 Wilshire Blvd.) 강당 303호다.

마약의 종류, 마약을 시작한 자녀의 행동을 발견하는 방법, 마약의 중독의 무서움, 마약에 대한 법적인 대처,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적극적 방법 등에 대하여 현직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강의가 전달된다.

기윤실은 "자녀들이 학교 그리고 교회의 친구나 선후배를 통하여 마약을 처음 접하고 있다. 마약으로 학업과 직장, 그리고 신앙까지 무너지지 않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직 셰리프들과 함께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 후에는 마약전담반 요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문의) 213-387-1207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Since 1999
www.e-nca.org
Irvine
La Canada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샬롬교회와 코이노니아선교회가 함께 노인잔치를 준비했다.

노인아파트 찾아가 섬김의 잔치

샬롬과 코이노니아 함께 예배와 즐거운 시간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와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11일 오전 사우스베이 지역에 소재한 골든웨스트타워 저소득노인아파트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섬김의 잔치를 마련해 드렸다.

제3회째를 맞이한 이날 어머니날 잔치는 1부는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 자선공연단의 연주와 김준식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2부는 샬롬교회 여선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경품으로 노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노인잔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티슈 및 간식거리를 개인용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

'윙스 오브 조이' 자선공연단은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성악, 찬양무용 등 다채로운 음악과 율동을 선사하였고 매 순서가 끝날 때마다 앵콜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날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및 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노인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및 영어로 순서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김준식 목사는 '마음을 지키라(잠4:23)'란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건강한 삶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결단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권면했다.

'윙스 오브 조이' 자선공연단은 2011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노인들과 환자들을 찾아 음악으로 섬기는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박종희 목사는 "이번이 93번째 연주회"라고 하며 "올 12월 100회째 자선공연은 특별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아시안들을 위한 위탁가정 에이전시로 승인받았다.

한인 위탁가정 위한 원스탑 서비스 시작

美 최초 아시안 위탁가정 에이전시 승인

갈 곳 없는 한인이나 아시안계 위탁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16일 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로 주정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최초로 아시안 위탁아동과 가정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가정 에이전시(FFA)가 탄생한 것이다.

LA카운티에만 120여곳의 위탁가정 에이전시가 있으나 모두 영어권 에이전시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유일하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앞으로 한인 위탁가정을 한국어로 모집, 교육하는 것은 물론 직접 위탁아이들과 위탁가정을 연계하고 관리,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한인가정상담소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로 위탁가정 교육을 받은 뒤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이나 다른 위탁가정 에이전시(FFA)를 통해 최종 수속을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과 이후 관리까지 모두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둥지찾기 담당자들은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과 위탁 부모들의 필요를 보다 가까이에서 지원, 관리할 계획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2014년 시작한 둥지찾기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둥지찾기가 2015년 말 중국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아시안계로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전문 에이전시 자격까지 갖추게 됐다"며 "전에는 아동보호국이 위탁가정이 필요한 한인이나 아시안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보낼 한인 또는 아시안 위탁가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에이전시로서 이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에는 중국인 직원이 상주, 중국 커뮤니티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커뮤니티에도 둥지찾기를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커뮤니티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여전히 LA카운티에는 위탁가정 수가 현저히 부족해 위탁아이들이 갈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일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말 현재, LA카운티에는 3만4295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38명이다. 한인 아이만 따로 분류한 최근 기록은 없으나 한인은 약 40~60여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총 33곳의 한인 및 아시안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얻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총 41회에 걸쳐 아동보호국에 보호 중인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12명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둥지찾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하며 차일드 케어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213-235-4868

UGN, 4차 산업혁명과 일터영성 세미나

UGN복음방송, CTS기독교TV, 라디오조이 등 기독매체들이 오는 6월 6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온라인 글로벌 창업과 일터영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1부 예배, 2부 일터영성 세미나, 3부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 및 마케팅 세미나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박성근 목사(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지창렬 변호사, 강순영 목사(JAMA 대표), 이은수 목사(찬양사역자), 황성수 목사(BAM 전문가), 여운영 목사(UGN 복음방송 대표) 등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1)크리스천 비즈니스 경영자 및 직장인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재무 건전성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커뮤니티와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2)크리스천의 일터 선교에 대한 개념 정립 3)4차 산업 혁명의 시대, 교회와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4)4차 산업혁명의 시대, 유통·쇼핑 4.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창업에 대한 개념 정립 5)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스마트 인터넷 선교사 양육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군사랑기독군인회 안보 장병 기도회 열어

남가주 군사랑 한국예비역 기독군인회가 13일 영생장로교회에서 40여 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새 지도력을 위한 안보 장병 기도회를 열었다. 원태어 전 해군제독이 조국과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하고 김회창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13:19-2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성경적 윤리와 가치관을 지키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크리스천 경영자나 직장인, 목회자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213-700-2891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8〉

아프리카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3)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김세현 선교사는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다. 성품은 긍정적이고 자상하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그가 꼭 친형님 같다. 아내인 노미정 선교사는 한마디로 현모양처형이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은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그들의 그런 성품은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훌륭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부어주신 은사라 생각된다. 현지인들이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느 땐가 그가 선교편지로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을 전해 온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교회개척과 주민들 섬기는 사역, 지도자 사역 등을 정신 없이 하다가 문득 문득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목청껏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물어물어 오래 전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세웠다는 기도원을 찾아갔다.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기도원 터가 있었다. 이미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라 들짐승들의 놀이터처럼 여겨졌던 곳이다. 그곳 관계자가 늘 와서 기도하던 김 선교사에게 '이곳을 기도원으로 만들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제안에 두 손 들어 환성을 지르며 카톡을 보낸 것이다.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원을 보수했다. 길을 내고, 헐어진 벽을 다시 세우고 막힌 창을 십자가 모양으로 내고 누구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의 영적 오아시스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교인들을 이끌고 가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또, 그들은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다 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나라, 동성애와 음란, 마약과 도박을 국가가 주도하며 멸망의 길을 걷는 미국을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단다.

그렇게 김 선교사 가족은 우간다 땅의 백성이 되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처를 세워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과 은사를 너무도 훌륭하고 값어치 있게 사용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우간다를 지키고 있다.



김세현 노미정 선교사 부부



김 선교사가 보수하여 다시 세운 기도원의 모습



한인 세계선교 서밋 참가자들

킴넷, 한인 세계선교 서밋 개최

빌리그래함수양관에서 다양한 선교 현안 논의

킴넷(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웍)의 한인 세계선교 서밋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애쉬빌에 있는 빌리그래함수양관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2일에는 정석천 태국선교사가 선교보고를 했고 신동우 목사(KWMA 이사장)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3일에는 '주기도문의 생활화'란 주제로 김석원 목사(국제기도공동체 대표), '한국교회의 선교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국제대표)가 주제발표하고 토의했다. 이어 '킴넷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한기홍 목사(킴넷 이사장)와 최일식 목사(킴넷 상임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후에는 인근의 침니락을 투어하며 휴식의 시간도 보냈다. 저녁에는 한기홍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4일에는 Bill Harding 선교사(SIM 선교회)의 아침 메시지 후 '한국선교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황성주 박사(국제사랑의봉사단 이사장, KWMA 회장)가 발표하고 'Partnership in Mission'이란 주제 아래 Woody McClendon(JAARS 대표), Matt Warren(Warren Solar 사장), 김현철 선교사(Grace World Mission 대표)가 발표했다. 이어 각 선교회를 대표해 홍석구 장로(GMI), 정광현 박사(INTERCP), 김일권 선교사(OM-KAM), 이야곱 선교사(UBF), 권종승 선교사(A Cup Water) 등이 세계선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나누었다.

서밋을 마친 후 5일부터 9일까지는 쿠바를 방문해 선교전략탐사 투어를 했다. 이곳에서 5세대 한인 후손들을 만나고 한인회관과 한글학교도 방문했다.

퀸즈한인교회 이규섭 목사 설교 표절로 사임

뉴욕의 대형교회인 퀸즈한인교회의 이규섭 담임목사가 설교 표절로 인해 사임했다. 최근 설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던 그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하기로 했다. 퀸즈한인교회 당회는 14일(주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목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당회는 이 목사가 사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기도의 시간을 드린다고 했다. 당회장직은 일단 현 당회서기인 박영근 장로가 대행하기로 했다.

당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퀸즈한인교회의 거룩한 제단을 어지럽힌 사태에 대하여 저희 당회원 일동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으며



퀸즈한인교회 이규섭 목사

"담임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신 성도님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당회에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로 제일 힘든 분들은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이시다. 진정한 위로와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고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똑같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배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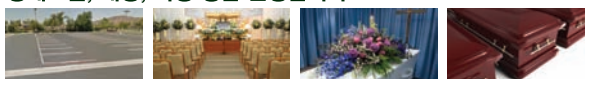
La Mirada Garden Florist
라미라다 가든 꽃집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례보험, 매장, 화장 상담 환영합니다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Since 1966
리스장의사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리스장의사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대속은혜의 믿음, 상벌의 원리

요한계시록 22:10-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계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그 시대 이후 예수님 재림 시까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과정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성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꾸며질 것이며,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살게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제할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신앙인이어야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듣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세력이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행패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양식도 집도 구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예언된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무화과나무의 과일이 태풍에 흔들리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삼년 반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어진 몸으로 휴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린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심판이 시작되어 적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힌 행패를 그대로 보응 받는 수난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음부에 가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음부의 문을 봉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며 교회를 훼방하며 능멸한 죄 값을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후 3년 반 동안 고스란히 받게 하시고 다함께 불로 죽이십니다. 이들의 영은 음부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보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 위해 부활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처럼 잠을 잘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7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사는 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들은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4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한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합니다. 내게 파송되어 오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을 수종들고 호위하기 위해 천사가 내게 오신 성령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은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을 파송 받은 순간 우리에게는 그 종인 천사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10-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니 요한에게 말씀하신 계시록을 봉하지 말고 알게 하여 회개할 사람들은 서둘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했을 때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 그 은혜에 보답하여 중심의 정성으로 섬기기를 다하면 별이 빛나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받고 성령은 받았지만,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과를 올려드린 일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은 받았기에 부끄러운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고전 3:10-15참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해 오셨으며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구원얻어 성령에 이끌려 온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 참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나무는 창세기 2:16-17에 나오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나무 실과만 먹었을 것이고 그 조건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34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부활 후 신령한 몸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먹을 것은 생명나무 실과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죄악의 부산물은 완전히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보장의 조건으로만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미움도 죄지을 일도 죽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17에 나오는 신부는 교회의 구원 얻은 성도들을 통칭하는 것이며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37-39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값없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제29차 5월 29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Memorial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7년 5월 29일(월) Memorial Day 오전 8:00

장 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20불 (식사 및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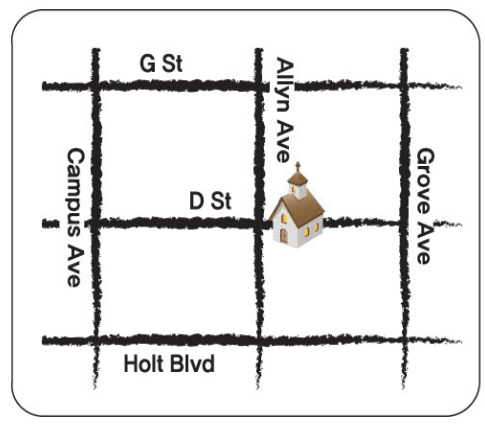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추신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3.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4.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철학과 비전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6. 목사 2명 이상 추천서

제출 마감일
2017년 5월 24일(수) 소인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oc1 church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청빙위원회 oc1newpastor@gmail.com

교회 관리(사찰)
Part or Full time 직원 구함

세리토스
생수의 강 선교교회(담임목사:안동주)에서
교회 관리(사찰) Part or Full time
직원을 구합니다.

1. 자격 조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3. 제출방법
E-mail : breadhoon72@gmail.com
우편 : Living Water Mission Church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문의전화 T. (562)653-0168

생수의 강 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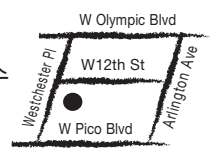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엽제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이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 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작은 씨앗의 희망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씨앗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씨앗 속에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희망은 어려움을 지탱시켜주는 능력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냅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희망은 그 씨앗 속에 담긴 놀라운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작은 씨앗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씨앗의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씨앗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씨앗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창1:12).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태어납니다. 사과 씨앗을 심고 복숭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은 정직합니다. 씨앗은 그 종류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무슨 씨앗을 심을지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씨앗은 작지만 힘이 셉니다. 씨앗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연약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점점 자라면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때로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진 것이 씨앗입니다.

셋째, 씨앗은 심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씨앗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넷째, 씨앗은 잘 가꿀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잡초는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은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또한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씨앗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모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는 한 해에 수백만 개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는 것은 대 여섯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들이 어느 날 숲을 창조합니다. 씨앗의 지혜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겨진 씨앗은 자신의 영역을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씨앗의 아름다움은 섬김에 있습니다.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열매를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열매 속에는 많은 씨앗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씨앗은 재생산을 거듭하게 됩니다. 날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빕니다.

이게 피 맛이야!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번 한국 방문시 103세가 되시는 외할머니를 거의 10년 만에 만나뵈었습니다. 한국은 1년에 한두 번 나가지만 늘 일만 마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못 뵈었는데, 이번에는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95세에서 멈춘 치매기 외에는 10년 만에 만난 외손자도 기억하시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1년 반 전 저의 아버지의 소천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혼자되신 80세 다돼가시는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안부를 나누는데 손녀딸 시어머니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잘 됐다."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까다로운 시애미…" 하시면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며느리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 일은 잘~ 됐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초등학생 증손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증조할머니 반응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참 안됐다" 해야 할 대체적 반응을 초등학생도 아는데, "잘~ 됐다"라는 말이 증조할머니 입에서 나와 너무 놀랐다는 증손녀의 말에 우리는 모두 포복절도(抱腹 倒)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자기 피붙이는 80세가 되어도 불쌍해 보이고 자기 혈육을 괴롭히는 자는 몇 살에 죽든 상관없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치매증세가 있어서 생각이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치매 때문에 더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장모님이 우리 아내가 해산할 때 자연 분만하는데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시더니, 당신 며느리는 배 가르고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애를 낳는데도 멀쩡히 눈뜨고 애 받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깨물면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은 분명한데, 딸이 아픈 것과 며느리가 아픈 것을 보는 시어머니와 엄마의 마음은 조금은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제 친구 목사들 모임에 가면 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례 파와 무할례파를 나누듯 할아파와 무할아파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목사들이 만나면 손주들 얘기만 하는데 무할아파는 도무지 대화에 낄 소재가 없습니다. 다같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손주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가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교회 동원을 위해 애쓰자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손주들 사진 보여주며 침이 튀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는 대화를 못 들어 주겠으니 주제를 바꾸자고 퉁퉁 거렸더니 "낳아보지 않았으면 도무지 몰라, 이게 피 맛(혈육)이야!" 하십니다. 혈육을 향한 강렬한 애착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 보혈의 맛을 본 사람들인데 복음에 강렬한 애착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가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없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과 의도가 분명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그렇듯 사람도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가면을 쓰고 변질되고 희석된 사명을 진실인양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기독단체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는 약 23%에 불과했고 전도하고 있다는 사람은 약 1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는 원칙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혹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완벽한 교회"라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해는 가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명이 존재한다. 사명이란 영어로 Mission으로 번역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임무, 명령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중세시대에는 사명자란 곧 죽음을 각오한 자를 의미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명자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기독교가 번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핍박과 순교를 감당했던 사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편의와 욕심과 같은 상반된 개념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 중심적이고 편의를 지향하는 욕심과 욕망이 사명의 소중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 기도는 사명자의 의미와 목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사명의 시작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당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욕심과 사명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겨진 목적이라는 면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다. 그러나 사명이 욕심과 다른 것은 욕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사명이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way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1개
(8불 상당 사은품)

공짜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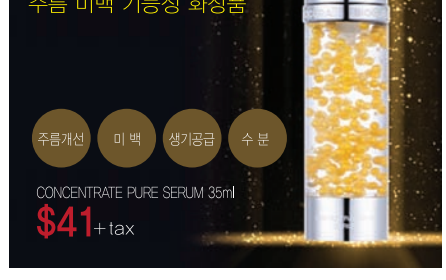
TREATMENT CAPSULE 50ml
$49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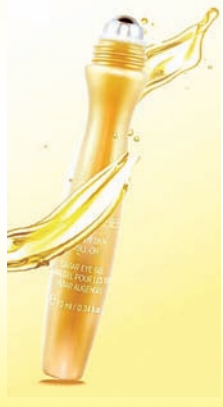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100주년교회 이재철 목사 후임에 '4명 공동목회'

"청빙 기준, CEO처럼 '교세 확장 또는 유지' 일 수 없어"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현 담임 이재철 목사 후임으로 부목사 4인의 공동목회를 선택했다. 이재철 목사는 오는 2019년 6월 퇴임하게 된다.

지난 달 상임위원회가 성도 9인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청빙위는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이재철 목사가 설교에서 공개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5월 상임위원회와 6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3분의2 출석과 3분의2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확정되며, 부결될 경우 차선책으로 외부 청빙을 진행하게 된다.

이재철 목사는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행 27:3-8)'라는 제목의 이날 설교에서 "청빙위원회에서는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제왕적 담임목사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던 시대는 끝났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목사는 "제왕적 한 사람의 담임목사가 기업 총수처럼 처신한다면 교회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제왕적 담임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면 교회는 정치집단이 되며, 제왕적 담임목사가 돈이든 이성이든 명예든 욕망의 덫에 빠지면 교회는 이내 분란에 휩싸이고 만다. 어떤 경우이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의 몫이기 마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누가 현재보다 교세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느냐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누가 최악의 경우에도 현 교세를 위축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그것은 기업체가 CEO를 채용하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교회의 기준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교회가 그런 기준을 갖는 것은 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테바(그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던 모세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기준은 교인의 증가 혹은 감소와는 상관없이,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끄심만 좇는 '테바'로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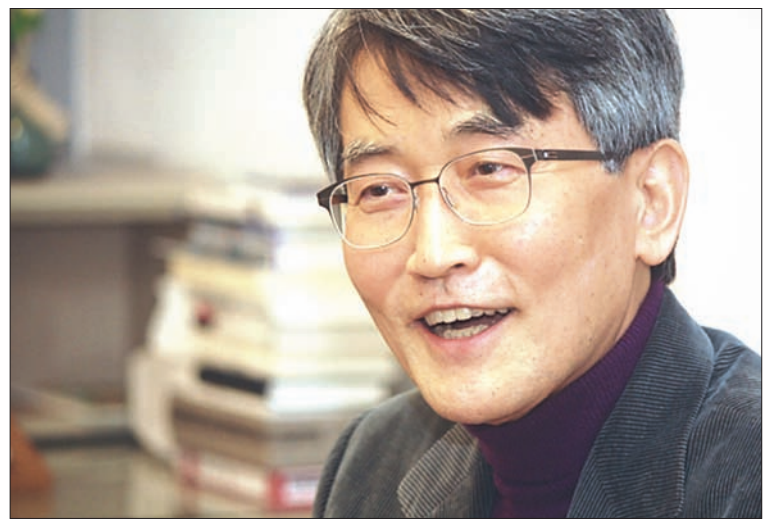
또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소위 더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 스카우트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그는 '소명인'이 아니라 '직업인'에 지나지 않는다"며 "참된 소명인이라면 단지 더 큰 교회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현재의 교회를 내팽개칠 수는 없으므로, 직업인이 아니라 오직 소명인인 목사만 교회를 '테바'로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빙위원회는 후임 담임목사의 업무를 4개의 전문 분야로 나눠 4명의 목사님으로 하여금 공동 담임목회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일 설교와 각종 성경공부를 책임질 영성 총괄 담임목사는 정한조 목사, 교회학교 총괄 담임목사로는 이영란 목사, 교구와 각 봉사팀 관리 등 목회 전반 업무를 맡을 목회 총괄 담임목사는 김광욱 목사, 대외업무 총괄에 김영준 전도사(9월 목사안수 예정)가 각각 분야별로 맡게 된다.

이 목사는 "주일 설교는 영성을 총괄할 정한조 목사님이 한 달에 세 번 담당하고 나머지 주일에는 세 분 목사님이 돌아가며 하게 될 것"이라며 "네 분의 목사님들은 각각 자기 분야를 책임지면서 또 함께 더불어 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후임 담임목사가 되는 것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며 "저는 지난 12년 동안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오면서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제왕적 담임목사의 특권과 특혜를 스스로 철폐하기 위해 애써 왔다"고 말했다. 또 "2년 후 제가 퇴임하면 저는 20년 간 살던 집을 떠나 시골로 낙향해 남은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는 퇴임 후에도 원로목사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

그는 "지난 목요일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 '청빙위원회에 의해 후임 공동 담임목사로 청빙됐음'을 통보했는데, 먼저 입을 연 분이 'No라고 해도 되느냐'고 묻길래 '안 된다'고 했다"며 "이것은 소명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대답하면서, 소명인인 목사만 100주년기념교회를 계속해서 '테바'로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는 그 동안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의한 교회 운영, 장로 권사 호칭제 실시, 주일예배 시간 전 교인 기도제 실시 등 없던 길을 만들어 왔다"며 "그리고 이제 네 명의 담임목사에 의한 공동 담임목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랑하는 교우,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 네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항로와 속도와 멈춤 여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일임하는 테바로 살아가자"며 "그때 우리 각자의 삶은 한 사람을 살리는 모세의 갈대상자,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신비스러운 섭리와 은혜의 지도를 날마다 엮어가실 것"이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제7회 탈자적 자연주의 국제학술대회 성황리 종료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 공동연구위원들 발제자로 참여

지난 4월 7-8일, 연세대학교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소장 전현식 교수) 소속 7명의 공동연구위원들은 미국 드류대학교 로버트 S. 코링턴(Robert S. Corrington) 교수가 주관하는 '제7회 탈자적 자연주의 국제학술대회'(The 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cstatic Naturalism)에 참석했다.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GRN)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는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 소속 연구위원들과 미국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미주리, 하와이 등지에서 모인 학자들이 "자연 속의 고통과 악: 아시아와 미국의 관점"(Suffering and Evil in Nature: Asian and American Perspectives)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논문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신학과 사상을 알리고 미국 학자들과의 상호 학술적 협력을 증진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이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은 우르술라 굳이너프(Ursula Goodenough) 교수가 맡았다. 세계적인 석학인 굳이너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고 현재 워싱턴 대학교(세인트루이스 소재)에서 유전자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의 공동연구위원들의 명단과 발표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전현식(소장, 연세대): "Post-Human Subjectivity and Evil in a Nature-Culture Continuum", 김수연(이화여대): "Nature and the Repressed (M)other: Re-reading Yu Yongmo's Groundless Ground of 'Byntang' from the Perspective of Ecstatic Naturalism", 박일준(감신대): "Evil as Taming Sufferings in Terms of Controlling Pain in a Post-Human Age", 박지은(이화여대): "Rereading Nature and Suffering in the Book of Job", 손문(연세대): "Suffering, Religious Education and Ecstatic Naturalism", 송용섭(영남신대): "Evil and Salvation through Faith by AI", 최순양(이화여대): "Post-human View on 'Woman and Nature': in Comparison with Ecstatic Naturalism"

더불어 학술대회 기간 발제를 맡은 다수의 미국 학자들 외에도, 한국연구재단의 한미특별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두 명의 학자(신익상(성공회대): "Posthuman and a Dialectic of Sacrifice", 이은경(감신대), "Education for the Symbiosis of Humans and Machines in a Post-Human Age")가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

향후 생태문화융복합연구센터 연구위원들은 연세대학교와 제네바 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오는 6월 21-22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UniDufour 센터에서 '고양된 인간성 및 트랜스인간화: 윤리적·신학적 성찰'(Humanity Enhanced or 〈Trans-Humanized〉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신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예하성 신임 총회장에 김양인 목사

제66차 정기총회… 동성애 반대에 힘 모을 것


김양인 신임 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빌 3:14)라는 주제로 1천5백여 명의 총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에 김양인 목사, 부총회장에 임웅재 목사, 총무에 엄기설 목사, 서기에 차흥식 목사, 재무에 탁정신 목사, 회계에 윤병하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김양인 목사(광주 목양제일교회)는 당선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총회원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여 주셔서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총대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종교인과세에 대처, 이슬람 대응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일본 하나님의성회 이사장 테라다 후미오 목사는 "복음사역자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미국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조용목 목사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에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다"며 "일본과 한국 양국 하나님의 성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회기 동안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30년 근속자에게 근속패를 각각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교회, 비상하게 될 것"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항소 기각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해 "우리 사랑의교회도 이제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기간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복음의 영광을 위해 비상(飛上)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했다.

오 목사는 판결이 나온 지난 11일 밤 교회 일부 교역자들에게 심경을 담은 글을 보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목사는 "오늘(11일) 고등법원이 내린 기각 소식을 듣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다함없는 감사를 올려드렸다"며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지난한 영적 전투와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견뎌 준 모든 교역자들께 마음 다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짐을 나눠 져 주지 않으셨으면 이 고난의 과정을 견뎌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부족한 종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마음 써 주신 동지들과 전우들과 형제자매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김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나?

"가장 절박한 순간, 절대자께 간구하는 것이 인간"

기독교인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고백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약 3년 전인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낙연 후보는 "(2014년) 2월 16일 영광중앙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가 진실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예배는 올해로 11년째"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는 10여 명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어리이던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 손수운전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주셨습니다"라고 했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건, 그 다음 "그러나 수술실 앞의 10여 명 가운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멀뚱멀뚱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술 받는 환자의 아비, 저였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아비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자께 간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의 수술은 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광중앙교회 김칠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서리집사가 됐습니다"라고 비로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 때를 회상했다.

그는 "이공계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수술 후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뒤에 2년을 공부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 아들의 병은 완쾌됐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아들은 수련의가 됐고 예쁜 신부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영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웰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이승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PCUSA 애틀랜타노회-복음주의연합 첫 정기모임이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PCUSA 애틀랜타노회 복음주의연합과 함께 모임

미국장로교(PCUSA) 애틀랜타 노회(Presbytery of Greater Atlanta, 노회장 오지현)와 복음주의연합(ECKAM, 회장 한병철)의 2017년 첫 정기모임이 지난 9일(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임시당회장 심우진 목사)에서 열렸다.

애틀랜타 노회장인 한인 2세 오지현 목사(Oglethorpe Presbyterian Church)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심우진 목사의 환영사, 신입회원 환영, 감사 기도문 교독, 고인이 된 회원 알림, 세미나, 공지사항 안내,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애틀랜타 노회는 PCUSA 173개 노회 가운데 가장 큰 노회로 100여 개 교회에서 450여 명의 목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교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ECKAM 조현성 총무는 지난 3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병철 회장 ,목사부회장 이문규 목사, 장로부회장 지정만 장로, 총무 조현성 목사 등이 선출됐으며 콜럼비아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한인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등 최근 사역내역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오지현 노회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 그 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신만의 틀과 한계를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교회의 유순형 권사의 가야금 연주로 은혜를 더했으며, 교회 측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저녁식사는 350여 명의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ECKAM 총무 조현성 목사가 노회 내 한인교회들을 돌볼 담당자로 임명됐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진행된 ECO 서북미 노회

ECO 서북미 노회 제자도 신앙 확립으로 선교 확장

한인교회와 복음주의 신앙고백, 선교 전략 공유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 서북미 노회가 지난 4일부터 6일(토)까지 오레곤과 워싱턴주에 소재한 ECO 소속 50개 교회에서 100여 명의 목사 및 장로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진행됐다.

서북미 노회는 ECO 교단이 2012년 설립된 신생 교단인 만큼 복음주의, 성경적 신앙 고백과 신학 및 교리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노회는 회무를 통해 기존 신앙 고백서의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을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리더십과 평신도들이 함께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사회 및 정치 참여적 부분을 배제하고 성경적 신앙 수호를 확립할 수 있는 고백서 작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노회에 참석한 각 교회 리더십들은 자신들이 본질적 제자인지 자문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노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 말씀으로 돌아가 제자도에 충실히 임하며 6개월, 1년 과정으로 거쳐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결정했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서는 미국교회가 한인교회의 선교 방향과 전도 사역, 교회 개척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한미 교회간 선교적 교류를 약속했다. 미국목회자들은 한인교회의 목회 및 선교 전략, 한인교회의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과 이슬람권 선교, 북한 선교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추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노회에는 타 교단 군목들이 참석해 노회 가입 절차를 문의하며 교단 가입을 희망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ECO는 현재 미주에만 300여 개의 산하 교회를 두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애틀랜타교협 8월 청년 전도대회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가 지난 27일(목) 정기임원회 및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회원교회 목회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송상철 회장은 "교협이 회원교회들의 돌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지속해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협은 '애틀랜타 대학 청년 전도대회'를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미정이다.

'2017 복음화 대회'는 한국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초청해 9월 20일(수)부터 24일(주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서부는 9월 20, 21일 성약장로교회에서, 동부는 22, 23, 24일 슈가로프한인교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민찬 목사(라그란지 에드벤트루터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10월 마지막 주에 세미나와 기념예배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교협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연설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C-SPAN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한다"

리버티대 졸업식 연설, 종교 자유 보호의지 드러내

지난 13일 리버티대학교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는 또 5만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항상 꿈의 땅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필그림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때, 이들은 기도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선언서에서 우리의 창조주를 4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동일한 이유로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우소서'(So help me God)라고 말한다. 동일한 이유로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래 한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야기는 깊은 신앙과 큰 꿈, 겸손한 출발로 시작된 도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버티대학교를 설립한 제리 폴웰 목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학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폴웰 목사의 비전으로 시작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꿈꾸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154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업적도 주위 사람들의 비난없이 이뤄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비평가가 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미래는 주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이란 말을 '동기부여'와 같은 말로 여기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즐기라"며 졸업자들을 격려했다.

강혜진 기자


극단주의 무슬림인 풀라니 목자들에게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묻고 있는 나이지리아 교인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풀라니 무슬림 목자들 400여명 개종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로 악명이 높은 풀라니 무슬림 목자들 400여 명이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9일(현지시간) 데일리포스트를 인용해 "극단주의 무슬림인 풀라니 목자들 40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이 가운데 7명은 심지어 안수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플라토 주 파니얌에서 COCIN 교회를 이끌고 있는 코퍼 세복 목사는 4월 30일 풀라니 개종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세복 목사는 "풀라니 목자들의 회심은 종족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갖자"고 했다.

하산 모함마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중부지역의 풀라니 목자들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몰아내고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며 유목을 해왔다. 이들의 습격과 위험은 나이지리아 테러단체인 보코하람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혜진 기자

영국 무종교인 증가세 감소

영국 무종교인 수의 빠른 증가세가 다소 꺾이고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 트윅커넘에 소재한 성마리아 대학교의 신학 및 종교사회학 교수인 스테판 불리반트 교수가 최근 영국사회태도 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실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영국의 무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48.6%지만 이는 50.6%로 그 비율이 최고치에 이르렀던 2009년보다는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영국 성공회 신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6.3%에서 17.1%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83년(40%)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리반트 교수는 "지난 3년간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영국성공회가 약간 부흥하고 있다는 말은 시기상조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10년 동안의 나쁜 소식을 지나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앙 전승률'에 있어선 타종교가 기독교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으나 후에 무종교인이 된 사례를 각 종교별 비(比)로 나타내면 26(기독교):14(유대교):10(이슬람·시크교):6(힌두교)이었다. 즉,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14명이 후에 무종교인이 됐다면, 기독교에선 그 수가 26명이라는 것이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장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 수태고지 교회 전경
▲교회 밖에 있는 성모와 성자 모자이크 그림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3)

예수님의 고향 – 나사렛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나사렛의 현재 모습

가나를 떠나 20여 리를 서남쪽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면 둥근 분지 형태의 나사렛이 나온다. 마치 주발을 세워놓은 듯한 분지 아래에 옛날의 나사렛이 자리잡고 있다. 능선 쪽으로 현대적 마을들의 모습이 보인다. 지금 이곳에는 아랍 이스라엘 시민권자라 부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며 살고 있고, 동쪽 능선 쪽으로 유대인들이 신도시를 건설하여 살고 있다.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무슬림들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나사렛은 수태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무슬림, 개신교인, 그리스 정교회인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최근에는 수태고지 교회 남쪽 200m 떨어진 무슬림 선지자 무덤을 중심으로 커다란 규모의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이 모스크가 건립되면 그야말로 수태고지 교회가 전면적으로 가려진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이 건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곳의 작은 모스크에서 건립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보통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안식일(샤밧)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기에 이 시간에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상가나 관공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나사렛은 토요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문을 닫고 버스도 쉰다.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주민들이 부지런히 교회를 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나사렛의 중심 수태고지 교회

이제 버스에서 내려 작은 시장을 통과하여 수태고지 교회로 올라가 보자. 이 교회는 오전 8시에 문을 열었다가 11시45분에 문을 닫고 오후 2시에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에서 온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인 Church of the Annunciation은 현재 한국어로 수태고지 교회로 번역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태는 짐승에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필자는 잉태예고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다.

교회 문을 들어서면 웅장한 전면의 모습이 보인다. 4세기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6차례의 부서짐과 세워짐이 있었고 현재 교회는 1965년 이태리 건축가 지오바니에 의하여 지어졌다. 가로가 70m, 세로가 30m 되는 이 웅장한 교회의 상부의 부조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잉태를 예고하는 모습이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1:26-38)는 라틴어구도 볼 수 있다. 정면 문에는 청동으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조각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 문에는 인간의 일대기(성경의 내용)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교회의 외곽과 내부에 전세계 가톨릭교회들이 기증한 벽화들이다. 주제는 마리아(미리암)와 아기 예수님이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벽화도 교회의 우측 회랑에 있으니 이곳에 잠깐 들러 사진을 한 장 찍어도 좋을 것 같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자. 투박한 기둥, 색칠하지 않고 있는 기둥은 무거운 질감을 주며 내부를 무게 있게 만든다. 실내는 다소 어두컴컴한데 성경의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쪽을 향한 제단과 뒤편 동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처녀 마리아의 동굴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 건물로 뒤덮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언덕을 이용한 주거지역의 일부로서 지하 저장고로 사용 되어졌지 않나 생각해 본다. 가까이 동굴을 내려가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자. 툭 터진 내부에 전면의 벽화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마리아의 동굴 위로 솟아 있는 지붕은 백합꽃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지붕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전체 모양은 왕관을 형상화 하고 있다. 백합같이 순결하신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설명이 있다. 전면 벽화에는 마리아, 그리스도, 베드로,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려져 있는데 맨 위쪽에 삼각형 안에 눈이 그려져 있다. 교회 측은 이를 성령의 눈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제단 전면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문 옆에는 일본에서 기증한 천연진주 기모노를 입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다.

성 요셉 교회와 회당교회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이곳에 전달되었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소식이었음을 다시 한 번 기뻐하자. 발걸음을 옮겨 1914년경 세워진 성 요셉 교회 지하에 가보자.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다는 예수님의 흔적을 물 저장고와 곡식 저장고, 기타 장비 저장고를 통하여 느껴볼 수 있다. 샤론의 꽃 예수를 찬양하며,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하 광장에 있는 왼쪽 스테인드 그라스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는 모습이, 오른쪽에는 요셉의 임종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서편으로는 5세기 비잔틴 시대의 세례탕을 남아있는 모자이크를 통해 알 수 있다. 성 요셉 교회 방문을 마친 후, 수태고지 교회의 측면에서 전체 사진을 찍어보자.

수태고지 교회에서 나오다 보면 나사렛 옛 시장을 만난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뛰놀았을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우측으로 조금 가다 다시 우측으로 꺾어지면 회당교회가 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으며 가르치기도 하였다.(눅4:16)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기도 한다.(눅4:24-29)



성 요셉 교회 본당

〈계속〉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담임 : 1명 기타 : 1명
단원 : 12명 키보드 : 1명
40~50대 남녀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7 VACATION BIBLE SCHOOL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4.20
No Minimum
No Set up Fee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Wet Tissue Full Color Printing
250ea $190
500ea $250
1,000ea $380
Bag
50ea $6.5(ea)
100ea $5.5(ea)
200ea $4.9(ea)
Banner
3ft x 10ft $50
Poster
(11x17 inch)
$20(5장) / $50(20장)
Invitation Card
250ea $99
500ea $120
1,000ea $150

● 이동주 칼럼

존 웨슬리의 '만인속죄론'은 현대의 만인구원 신학과 같은가?



이 동 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서론

선교와 봉사와 사회변혁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존 웨슬리의 생애는 사실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표를 위해 바쳐진 생애였다. 선교신학자 케인(H. Kane)은 웨슬리에 관하여 "회심을 체험한 직후부터 전도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선교사역에 있어 아마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전도는 40년간 계속되었으며 하루에 평균 3-4회의 설교를 하였던 것이다," "그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파멸되어 가던 영국을 건지고, 케리에 의해 출발된 근대적 선교운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의 책 〈기독교 세계선교사〉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성장 운동과 사회정화 운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국교회의 무기력화, 세속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며, 점점 타락해 가는 한국 사회적인 도덕성에 직면하여, 영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장 실태와 웨슬리 선교활동의 목표를 검토하면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필요를 느낀다. 웨슬리를 신학자적인 대상으로서보다는 선교 사역자적인 대상으로서 우리는 ①복음주의 운동, ②사회변혁 운동, ③교회연합 운동의 세 가지 범주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웨슬리의 선교와 복음주의

먼저 우리는 '감리교회가 복음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진보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이 더 우세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복음주의라면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와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리회의 기초교리는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믿는 복음주의이다.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설교와 찬양집과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에 설명되어 있다"고 한국 감리교회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 복음주의 개념 정의

복음주의라는 개념은 개혁자들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경건주의와 영·미 대각성운동에 걸쳐, 현대의 비복음주의적 운동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미국의 근본주의 등 세계 복음주의 운동들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16세기에 영국에서 사용된 '복음주의(Evangelical)'란 종교개혁자들을 일컬은 말이었다. 독일어로 Evangelisch라는 말과 같다. 즉 루터교인들과 개혁주의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컬었던 개념이다.

첫 Evangelisch라는 개념은 반개혁자들이 개혁자들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이름을 따서 Lutheraner 또는 Martinaner라고 칭했는데, 1521년에 루터가 이것을 Evangelisch라고 고쳐 불렀다. 이와 같이 초기의 Evangelical이라는 개념은 개신교(Protestant)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 후에 18세기 영국에서는 의식보다는 복음을 존중하는 Low-Church와, 감리회 운동, 그리고 모든 각성 운동들을 포함한 초교파적 성격을 띤 개신교 운동들을 Evangelical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독일의 경건주의를 Evangelical이라 하였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모든 복음주의자들의 공동체인 Evangelical Alliance(1846)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사용하는 Evangelical이란 말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의미와 같다.

그 후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 신학의 반동으로 일어난 현대 복음주의 운동들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근본주의와, 이와 비슷한 선교단체인 IFMA(Internation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1917), Carl McIntire의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1948)등의 복음증거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현실문제를 다루며 신학적인 연구와 여러 타교회들과의 협력을 꾀하는 'New Evangelicals',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띤 EFMA(Evangelic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1945)가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기부터 비성서적 현대 세속화 신학의 발전과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신학사조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복음주의 운동이 있다. 이들은 1966년 WCC 내 '교회와사회협의회'에서 혁명신학이 주창되던 해에, 미국에서 Wheaton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차 WCC 총회(1968년)에서 '세속화 신학'이 절정에 달아오르자, 독일에서 Frankfurt 선언문을 냈다(1970년). 1973년 WCC의 '세계선교와 복음화 위원회(CWME)'에서 세속화 신학과 종교혼합주의가 강세로 진행되자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Lausanne 언약'을 발표하면서(1974년)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릇된 흐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복음화를 결코 중지할 수 없는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곤 하였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다섯 명의 세계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은 보통 미국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과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ean), 영국의 존 스토트(John R. W. Stott), 독일의 피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 Georg F. Vivedom를 꼽는다. 그들의 특징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성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둘째 개인적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 셋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한 신앙, 넷째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한 선교와 복음화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 밖의 세계복음주의 단체로는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가 있어 세계복음화와 사회적 책임에 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복음주의 운동은 존 웨슬리가 2세기 전에 영국에서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과 병행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2) 웨슬리의 복음주의 선교

웨슬리 선교의 기초는 그의 회심일(1738년 5월 24일)을 기하여 변화되었다. 회심 이전에 그는 합리주의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이성만을 진리의 유일한 척도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필연적으로 이성에 귀착되어야"한다고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조지아로 선교하러 떠나면서(1735년) 옥스포드 대학교 학감이었던 John Burton 박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는 인디안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함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선교라는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의 회심일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구원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그는 비로소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웨슬리는 그의 논문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인사들에게 대한 간곡한 호소문"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며, 무슨 고생인들 사양하겠는가?"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일도 하지 말라"고 분부했다. 제1차 연회에서도 감리교 대표들은 그 사역의 목적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밖에 다른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웨슬리와 감리회의 선교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제4회 연회는 그 목적을 "우리의 사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방황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큰 길이나 울타기 밖에 나가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눅 14:23)"고 하는 강한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기록하고 있다. 회심 후의 웨슬리는 과거의 사변적 신앙관을 버리고 이성이 계시의 주인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하며, 다만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성서는 ①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릇됨이 없는 진리이며(infallibly true)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②구원받기에 필요한 진리가 충족히 포함된 구원의 도구이며 ③하나님의 계시이며 모든 진리의 최고 권위였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도 간절히 기도하며 성서를 읽는 자에게 과거와 같이 계속적으로 감동하시고(continually inspires),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심을 인정하였다. 그는 성서를 성서적인 맥락에서 이해했으며, 성서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성서의 통일성을 발견하였다.

웨슬리는 "만인속죄론"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위의 현대 만인구원신학과 같은 불신자의 자동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속죄하셨다는 뜻이며, 그 주님이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믿는자는 구원을 받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다.

웨슬리의 구원관은 불신자를 그대로 포괄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한 구원관이다. 그는 "불의한 자들이 부활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과,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언 할 수 없는 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같이 웨슬리의 신학은 철저히 성서적 기초위에 서 있고 복음적 전통 위에 서 있다. 그는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bri)이었다. 성서적 문맥에서 떠난 해석을 하지 않았고, 그 통일성 안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였다. 그는 성서적 맥락에서 뜯어낸 복음이나 "파괴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다.

웨슬리의 선교메시지는 성서적이고, 체험적이며,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지주의나 체험주의 내지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복음주의자였다. 〈계속〉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 CA 90019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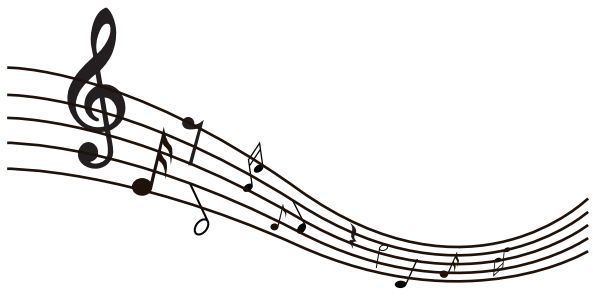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로택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평화통일 선교회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평신도의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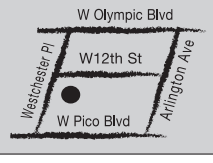
통일학 개론 강의(매주 OPEN)

강사 : 남석훈 피아니트 선교사

사역 : 상담학 박사 에스터 남 선교사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통과
정성 | 좋은씨앗 | 2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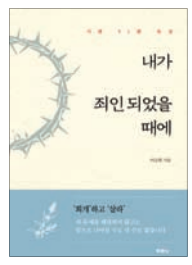
'복음에 빗진 내시경 의사 이야기'. 외국인 선교활동이 금지된 히말라야 고원한 도시에 파송된 의료선교사의 10년을 기록했다. 저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현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들을 가르치면서, 도시 빈민들과 소수민족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위부터 직장까지, 8m의 신묘막측한 소화기관 활동을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분류해 창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눈을 떠요, 아프리카
김동해 | 홍성사 | 264쪽



평범한 안과의사였던 저자는 9·11 테러를 보면서 고민하다, 그들의 증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겠다고 결심한 후 안과 수술이라는 달란트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의료선교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를 설립해 38개국 14만 명을 진료하고 2만여 백내장 환자들의 시력을 찾아준 이야기, 아프리카 비전루트 등을 담백하게 담았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규현 | 두란노 | 196쪽



시편 51편으로 두 달 이상 설교한 내용을 엮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이상 죄 가운데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비로소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드리는 '참회의 시'다. 시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면모와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용서가 없다면 관계 회복도 없기 때문에, 저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크리스천, 자유를 묻다
새뮤얼 볼턴 | 생명의말씀사 | 144쪽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 은혜와 율법의 모순, 순종이 의무인가 선택인가 등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율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시대를 거듭해 가장 사랑받은 대답을 들어본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철저히 성경의 관점을 토대로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잘 설명해 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누구나 알아야 할 '대한 사람 그리스도인' 서서평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지 사람'이 되는 경우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조선에 선교를 온 선교사들 중에서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인이 된 몇 선교사가 있다. 그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있고 싶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 1880-1934)이다. 그녀의 사역을 보면 누구도 상상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창조, 추진, 그리고 성취가 있다. 서서평의 성공적 사역은 도전만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심장을 압박한다.

우리 사회의 간호사와 여성 운동은 서서평을 빼고 논의할 수 없다. 서서평은 조선간호부협회를 조직했는데,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간호협회와 구분했고, 외국 간호사들을 규합시킨 조선의 간호협회(조선간호부협회)를 만들어 국제간호사협회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시도했다(33쪽 외 여러 곳).

서서평을 읽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다. 길지 않는 선교사의 행적(1912-1934)에서 낳은 열매가 너무나 크다. 서서평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서평에게 영향을 받은 후손들은 그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기록을 남겼다. 백춘성 장로(1913-2010)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백춘성 장로는 서서평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들을 수집해 〈천국에서 만납시다(1980년)〉를 집필했다.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은 백춘성의 유작으로, 두란노에서 서서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우리에게 소개했다.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백춘성
두란노 | 252쪽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에서는 일상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전해주고 있다.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는데, '한일'이 서서평과 관계된 이름임을 알려주고 있다. 미혼으로 사역했지만 가장 많은 자녀를 양육했던 조선의 어머니이다(14명의 입양, 38명 과부 보호).

백춘성의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은 완전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서서평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저술로 유익하다. 서서평에 대해서는 양국주 선교사가 역사적이고 학문적인 수준의 저술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창삼 장로, 양국주 선교사, 두 형제가 서서평 내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각각 〈조선을 섬긴 행복-서서평의 사랑과 인생〉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쉐핑 이야기〉를 펴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저술이 있다.

두란노는 백춘성 장로가 쓴 서서평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편집해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독자들은 서서평의 삶을 읽으면서 주의 섭리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Good Neighbors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9 (일), 11am	나눔과 섬김의 교회 (김종용 목사)
4/16 (일), 2pm	남가주새언약교회 (강양규 목사)
5/27 (토), 11am	할렐루야 한인교회 (송재호 목사)
6/23 (금), 7pm	갈보리 믿음교회 (강진웅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의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전하는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은수 목사

현 음악감독 및 찬양사역자(1987~) 지금까지 총 6,000여회 집회를 인도해옴
현 세미나 강사, 설교자, 작곡자, 예배인도자, 방송인(1987~)
현 LA 씨에라 호스피스 원목(2015~)
현 LA Shepherd University 교수(2015~)
현 굿네이버스 미국 나눔대사(2017~)

대표곡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의 약속',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등 다수.

일정문의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877.499.9898 (한국어 2번)
Los Angeles Office: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Good Neighbors

우리의 위선적 신앙생활 '그로테스크' 하게 담아내다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16] 종교개혁 500주년에 걸맞는 소설



현명한 피
플래너리 오코너 | 허명수 역
IVP | 268쪽

이 소설을 읽으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한 정서를 얘기할 때 곧잘 쓰이는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말이 어떤 이미지를 뜻하는지에 대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그로테스크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쓴 소설'처럼, 시종 음습하고 가라앉으며 질퍽거리는 진흙탕을 밟은 듯 미끄덩거리고, 책 전체가 아닌 문장 하나를 읽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불쾌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읽으면서 느껴지는 뭐라 딱히 정의내릴 수 없는 침잠함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이 궁금증은 책 후반 '옮긴이의 말'에 자세히 풀어놓은 '그로테스크'라는 말에 대해 읽으면서 해소될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굳이 외국어로 전환시켜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잘난 체'가 아니라, 이 분위기에 이만큼 적절한 말이 없기에 외국어로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책을 주로 내는 IVP의 첫 번째 소설이라 하여 출간 전부터 관심이 갔습니다. 책 제목이 〈현명한 피〉, 딱히 뭐라 알 수 없지만 호기심이 가는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도가 아니고 신학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기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IVP 도서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며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소설이 'IVP스러운 것'은 제목에서 느끼는 이미지 외에, 제가 'IVP'의 도서를 이해하는 독서 이력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이 책은 쉽지 않습니다." 의외의 상황과 배경, 의외의 대사와 심리 묘사가 가득하고, '왜 그런 상황과 배경, 왜 그런 대사와 심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전체 268쪽으로 장편소설이라 하기엔 조금 모자란 분량이라 처음 책을 손에 잡을 때 '읽기 괜찮겠는데!' 할 수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리둥절하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골몰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여 이 책을 완독하게 될 겁니다. 완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사전 정보로 이 책의 줄거리를 알 수 있겠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어린 날 두 남동생이 죽는 등 우울한 일들의 영향으로 비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된 헤이즐 모츠라는 주인공이, 미국 남부의 한 도시로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부적응자 에녹, 가짜 맹인 아사 호크스, 그의 딸 사바스 호크스, 쉽게 몸을 파는 와츠 부인 등 등장인물의 면면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건 1950년대가 갖는 미국의 상황과 더불어, 작가가 루프스병이 발병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쓴 첫 번째 장편소설이기에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인공의 이해 못할 언행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베르 카뮈 〈이방인〉의 주인공인 뫼르소가 떠오릅니다. 뫼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랍인을 총으로 살해하는데, 그 이유를 '강렬한 햇빛' 때문이라고 하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허무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책을 놓고 보면, 그의 이해 못할 언행들의 이유에 집중하는 건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일로 여깁니다.

이 소설은 이해를 통해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부조리와 믿는 자의 위선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인공은 갑자기 대중들에게 나가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돈벌이에만 집중한 가짜 목사들을 지탄하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세웁니다.

주인공은 "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전합니다. 나는 맹인이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걷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채 있는 교회의 성도이자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가 구원과 엮여 있지 않음을 알려줄 겁니다. ... 애초에 타락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없었고,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도 없으며, 타락과 구원이 없었으니 심판도 없었다고 설교할 겁니다. 예수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121쪽)." 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강렬히 비판합니다. 저는 이 역설(力說, 강렬한 주장)에는 역설(逆說, 반대의 주장)이 있다고 봅니다.

주인공이 세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주인공이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범법 등 이해 못할 모습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정죄는 일요일에만 경건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면죄부를 받은 양 살아가는 위선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해 못할 주인공의 모습 또한 이해 못할 신자들의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걸맞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소설이 추천사에 적힌 대로 뛰어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소설이 주는 가독력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는 이야기를 따라가게 하는 자연발생적인 재미여야 하지, 다른 이가 추천해 주는 강제적인 의미 부여의 재미여서는 안 됩니다. 이 소설은 이런 자연발생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의 언행에 대해 '왜?'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없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독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답답해하다, '왜?'를 포기하고 읽게 되니 그제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도 뛰어나다고 할 순 없고, 쉽다고도 할 순 없으며, 재미있는 책이라고도 할 순 없겠지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을 때보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을 때, 계속 책 속 인물들의 언행과 심리가 떠오르는 걸 보니, 이 책은 인내심만 가지면 여타의 재미 위주의 소설에서 줄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IVP가 계속 소설 등과 같은 문학 도서들을 출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많은 출판사에서도 나은 문학 도서들이 나와서, 출판 시장을 더 넓히길 소원합니다.

서평가 이성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원리를 최초로 파악하다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15] 국부론



국부론
애덤 스미스 | 유인호 역
동서문화사 | 1,136쪽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이며,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근대경제학의 출발점이 된 〈국부론〉을 저술했다. 처음으로 경제학을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경제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예정 조화설을 주장했다.

〈국부론〉은 스미스의 대표작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 저작은 일반적으론 경제적 자유주의의 '복음서'로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부국론〉으로도 불렸다. 이 책은 5편으로 나눠지는데, 제 1-2편이 경제이론, 제3편이 경제사, 제 4-5편이 경제정책으로 되어 있다. 1편은 노동 생산력 개선과 노동 생산물이 국민 여러 계층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 생산력이 커진 원인과 노동 생산물이 어떻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지 나타난다. 숙련도와 솜씨 및 판단력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로, 그것은 예측하고 의도한 지혜의 결과는 아니지만 거래와 교환 및 교역의 완만하고 점진적 및 필연적 결과로 최저 계층까지 보편적 부를 제공하게 한다. 이어서 화폐의 기원과 자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동임금과 재산이윤 및 토지지대로 구성되는 상품 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자산의 성질, 축적, 용도에 관해서는 2편에 나온다. 자산은 자본과 직접 소비 위해 유보한 부분으로 나뉘고, 자본은 다시 토지나 기계시설 등의 고정자본과 교환되는 재화나 상인의 자본인 유동자본으로 나뉜다. 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은행 등의 기능까지 이어지고, 자본축적에서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한다.

3편에서는 국민들의 부유의 진보에 대한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지의 장자상속법, 한정상속법, 경작에 대한 주체 변화 및 그에 따른 농촌 개량의 차이, 도시의 성장 과정과 그에 따른 농촌 개량 이바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는 4편에 나온다. 중상주의, 국가보호무역, 독점의 폐해 등 당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스미스의 본격적 비판이 신랄하다. 식민지에 대한 내용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등과의 비교, 인도와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간의 비교 등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대며 논거를 삼는다. 마지막 5편은 국가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조세는 각자 능력에 맞는 비례대로의 각출과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인두세나 사치 소비재에 대한 세금은 무차별적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고전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한때 스미스의 〈국부론〉은 각국의 경제학자에 의해 널리 연구됐다. 그는 현대의 정치경제의 토대가 되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를 독자적 학문 분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창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학문을 '경제학'으로 부르거나, 자신을 '경제학자'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1731년에 옥스퍼드대학에서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글래스고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부론〉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과학적 저작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것만은 분명하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세 남매를 명문대에 합격시킨 부모의
실 · 전 · 교 · 육 · 노 · 하 · 우
공부하는 아빠 공부시키는 엄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주고 성장시키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이 함께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이자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아픔을 보면서 부모가 뉘우치고 더 성숙해지는 쌍방향적인 사건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며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경험,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은 안달복달 입시 정보만 캐묻고 다니며 자식의 성과만 종용하는 부모가 절대 느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저자_ 김영숙

'한 목회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저자는 35년째 양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용수 목사의 사모이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의심치 않는 김영숙 사모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 퍼포먼스를 높이는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는 〈와이즈맘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매주 젊은 엄마들과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부모의 훈육 자세가 천만 원짜리 과외 공부보다 훨씬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용수 목사의 저서



설교
모든 문제의 해답 324면 / 7,000원
꿈꾸는 것 같았도다 408면 / 12,000원
우리가 말한대로 408면 / 14,000원

사사기 강해
오늘의 드보라 312면 / 9,000원
평화롭게 사는 길 400면 / 12,000원
최후의 승리 336면 / 10,000원

야고보서 강해
지혜를 얻는 열쇠 508면 / 15,000원

마가복음 강해
성도의 행복 416면 / 11,000원
오늘과 그날 470면 / 12,000원
주님의 약속 459면 / 12,000원
위대한 임무 397면 / 11,0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상) 414면 / 10,000원
새 하늘과 새 땅(하) 484면 / 12,000원

빌립보서 강해
그리스도인의 주소 572면 / 12,000원

요나서 강해
요나와 나 208면 / 9,000원

쿰란출판사 ▪ www.qumran.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qrbooks@daum.net ▪ 02-747-1004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May 18, 2017 Vol. 101

How Can Asian American Christians Engage In Racial, Political Issues? Scholars Weigh In

BY RACHAEL LEE



(From left to right: Panelists Grace Kao, David Yoo, and Miyoung Yoon Hammer, with moderator Kevin Doi) Panelists discussed how Asian American Christians could become more engaged in social issues at a panel hosted by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Asian American Center on May 11.

For Asian American Christians, understanding ethnic identity is necessary to be able to more deeply understand and act on faith, politics, and justice, according to a panel who discussed these issu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n Thursday.

"Historians say context is everything," said Dr. David K. Yoo, vice provost of the Institute of American Cultures at UCLA, who was one of three panelists.

"How can we say we know ourselves without knowing our context?" Yoo posed. "To say that these things don't matter is kind of deluding yourself."

The panel session, which was hosted alongside other events by Fuller's Asian American Center in commemoration of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touched upon various topics such as how ethnic identity affects an understanding of theology or faith; social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need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o speak up and act.

Dr. Daniel D. Lee, director of Fuller's Asian American Center, said that he and the other organizers felt a panel on such topics was necessary due to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If we as Asian Americans do nothing, where are we going to end up?" Lee said. "What kind of witness are we going to bear for the future generations, and for society as a whole?"

Indeed, though many of the panelists were able to point to several social issues that impact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 immigration, health disparities, gender roles, and sexuality issues, to name a few among those mentioned –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greater engagement both with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with the greater community.

For instance, Dr. Miyoung Yoon Hammer, chair of Fuller's marriage and family department in its School of Psychology, encouraged churches to seek out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or with local non-profits to address these issues, particularly in providing help to undocumented individuals.

Asian American Christians must also speak up and engage with the greater community in political issues as well, panelists said, as "silence is powerful," in Yoon Hammer's words.

"When you're silent, you're affirming what was last said," Yoon Hammer said. "Nobody wins."

One could start out in engagement by first seeking out what problems or issues may be affecting the local community surrounding the church or an individual's home for example, said Kim.

Dr. Grace Kao,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Sexuality, Gender, and Religion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ncouraged churches who may not know where to start to first consider what it could offer to the community.

"There might be particular strengths that a church has," Kao said, "or a particular geographic location that lend them to pursue one set of social justice issues over another."

She added that many individuals and churches could be "overcome by how broken the world is," and "how great the need is."

"The best spiritual mentors I've had were people who told me, 'Don't feel like you have to do everything. There's something about doing something, even if it's not everything,'" said Kao.

Meanwhile, the Asian American Center also hosted an interview with hip hop and spoken word artist Jason Chu and musician Joe Kye about being culture shapers, as well as a panel on the Manzanar camps and how it has led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to work together with the Muslim American community.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Appoints Korean American as President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s board of trustees has announced that Joel Eunil Kim will be the next president following current president Robert Godfrey's retirement.

"The Presidential Search Committee has worked diligently since September 2016 to find the man whom the Lord has prepared for this time of leadership in the life of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said Ronald Prin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in a statement released on May 9.

"Through the careful and prayerful process of considering many candidates, with the Lord's blessing, we are pleased with this selection of Rev. Kim for the future of WSC."

Kim has worked at Westminster as an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 since 2005 and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and Calvin Theological Seminary. He also serves as the chair of the Candidates and Credentials Committee of the Korean Southwest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It is my deep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as the next president of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said Kim in a video statement.

Godfrey, who plans to retire by the end of July, said that Kim "brings many gifts to this new role along with his passion for and experience in pastoral ministry."

"WSC has become a seminary not only for the west, but for the nation and the world," he added.

Kim, who immigrated to California from South Korea at the age of nine, currently also serves as a teaching elder in the PCA and is a member of New Life PCA in Escondido.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WSC), known for its commitment to Reformed theology, first enrolled students in 1980, and was initially a branch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ennsylvania. WSC became an independent seminary in 1982.

Local Churches Partner to Host Conference for Young Adults

Organizers of the 'SOLA Conference' launch 'SOLA Nexus' for post-college young adults

BY RACHAEL LEE

Five years since the first SOLA Conference for college students, pastors from ten lo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are working together to host the first SOLA Nexus, a conference for post-college young adults.

"When the SOLA Council got together, we recognized the lack of ministry opportunities for young adults outside of the local church," said Richard Kim, the lead pastor of Gospel Life Mission Church.

Kim, along with five other pastors of five different local churches, make up the SOLA Council, which is the most senior level of leadership in what is known as the SOLA Network, which also hosts and organizes the SOLA Conference and offers resources online.

"When we looked at the landscape, there was a lot of stuff going on for college students and even for married couples, but there really wasn't much for young adults," Kim said, "and we were wondering, 'Could this be a barrier for young adults in growing to be the disciples that God wants them to be?'"

SOLA Nexus, which will be taking place under the theme, "Connected to God, Connecting to Others," will take on characteristics of both a retreat and a conference, with plenary sessions and seminars like those of a conference, as well as small group sessions with members of differing churches, like those of a retreat.

"When you're a single young adult, your access to community becomes limited. You're not with a roommate or on the college campus anymore, and you barely have enough time to even hang out with your close friends," Kim said of the need for a space for young adults to connect on a smaller scale during the event.

During the main sessions, speakers such as Paul Kim, the lead pasto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San Diego; Alex Choi, the lead pastor of Sovereign Grace in Los Angeles; and Ray Causly, the co-lead pastor of Living Way Community Church in Los Angeles will aim to point young adults to connect with God.

Meanwhile, the small group sessions – which will be led and facilitated by lay leaders of the various churches of Southern California – will be a space in which the young adults could connect with one another, organizers hope. Small group leaders will receive training guidelines and resources prior to the conference.

Topics that young adults may commonly discuss – pre-marriage counseling, work-life balance, being a witness in the workplace, and being content in singlehood, among others – will be explored during seminars.

SOLA Nexus will take place from June 2 to 3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For more information, visit sola.network/sola-nexus/.

KFAM Becomes First 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Focusing on Supporting Asian American Families, Children, Youth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became the first nonprofit organization in Los Angeles that focuses on connecting Asian American foster families with Asian American children and youth to become a state 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FFA), the organization announced on Tuesday.

Though there are some 120 licensed Foster Family Agencies (FFA) in Los Angeles County, all of them only provide services in English, with KFAM being the only one that provides in-language services.

"KFAM plans to be a 'one-stop' service provider, recruiting and educating Korean foster families in Korean, and connecting foster children with foster families," said KFAM.

Foster Family Agencies ar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licensed by the state to recruit, certify, train, provide support, and find homes or other placements for children, according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rior to KFAM becoming a licensed FFA itself, Korean and other Asian ethnic families received training in-language from KFAM and went on to finish the last stages of becoming certified foster families through different agencies. Now that KFAM has become a licensed FFA, these families will now not only be able to go through the entire process through KFAM alone, but also continue to receive services and support from KFAM thereafter.

"Through the widespread support and interest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Korean Foster Family Initiative we began in 2014, that interest expanded to the greater Asian community beginning with the Chinese community in 2015, and now, we've even become a 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said KFAM's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According to Chung Joe, finding Asian American foster families for Asian American children through the LA County'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DCFS) was often a difficult process. She expressed hopes that, as KFAM is now a licensed FFA, the process will become easier for both the children and families.

KFAM plans to continue forming partnerships with other Asian ethnic organizations and spread awareness of KFAM's 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to the Chinese, Filipino, and Cambodian communities as well.

More than 34,000 children are currently living under the protection of LA DCFS as of late April this year, the organization said, and more than 600 of them are Asian. KFAM estimates some 40 to 60 of them are Korean.



KFAM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second from right) and other 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staff hosted a press conference on May 16. (Photo: KFAM)

Since KFAM began its 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33 Korean and other Asian ethnic families have become certified foster families, and these families have offered 41 placements as of early May. Some have offered their homes to children for as short as three weeks, and others as long as almost three years, the organization said.

KFAM will be hosting a seminar on its 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at Oriental Mission Church on May 20 from 9:30 AM to 11:30 AM. The free seminar, which will explain the process to become certified foster families, will be in both Korean and English, and childcare will be provided.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Fresno City Council Votes Unanimously to Display 'In God We Trust' in Chamber

With a unanimous vote on Thursday (May 11), Fresno became the largest city in California to decide to have the national motto, "In God We Trust," displayed in its council chamber.

The resolution, which was passed with a 6-0 vote without a vote from Councilman Oliver Baines who was absent, includes a requirement that the display be funded privately, not using any taxpayer money.

The push to pass the resolution was spearheaded by Councilman Garry Bredefeld of District 6.

"We're clearly a nation that was founded on faith," Bredefeld wrote in an op-ed article posted on the Fresno Bee.

"'In God We Trust' does not choose one religion over another. It simply and eloquently reminds us that those of us who believe in God should trust in Him to guide us as we make important decisions for all citizens of Fresno. Those who don't believe have the freedom to interpret the national motto as they wish, or merely disregard it," he wrote.



Fresno City Council voted 6-0 on May 11 to display the national motto, 'In God We Trust,' in the council chamber. (Photo: David Prasad / Flickr / CC)

According to Bredefeld, seven other cities in Fresno County, and 648 cities in the U.S. display the national motto in their council chambers.

The Fresno Bee reports that the day of the vote was met with crowds of several hundred supporters and opponents of the resolution. Many supporters wore t-shirts with the motto printed on them, the report notes.

One of the concerns brought up by opponents was that the resolution was not inclusive of people of other faiths or those of no faith.

"You think this is going to be inclusive? You think this is patriotism? Not for non-believers, not for atheists, and not for those who are free thinkers," Juan Avita was quoted as saying by ABC 30.

Kentucky Court Rules Christian T-Shirt Maker Can Refuse to Print Gay Pride Shirts

Blaine Adamson refused to print based on the message, not the people, the court found

A Kentucky appeals court ruled on Friday that a Christian T-shirt maker did not discriminate in his refusal to print shirts promoting a gay pride event.

In the court ruling, Chief Judge Joy Kramer stat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Blaine Adamson of Hands On Originals, a shirt printing company in Lexington, "refused any individual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goods, services, facilities, privileges, advantages, and accommodations it offered to everyone else because the individual in question had a specific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Kramer said that instead, Adamson was found to have objected to spreading the message that the group wished to print on the shirts, rather than rejecting them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Nothing in the fairness ordinance prohibits Hands On Originals, a private business, from engaging in viewpoint or message censorship," Kramer wrote.

The court voted 2 to 1 in favor of Adamson, the latest ruling in a case that has been heard by various courts over the course of five years.

"Today's decision is a victory for printers and other creative professionals who serve all people but cannot promote all messages," said Jim Campbell, the senior counsel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The legal group defended Adamson at the Fayette Circuit Court, which also ruled in Adamson's favor.

"It is also a victory for all Americans because it reassures us all that, no matter what you believe, the law can't force you to express a message in conflict with your deepest convictions," he added.


Blaine Adamson of Hands On Originals. (Photo: Alliance Defending Freedom)

In 2012, Adamson declined to print shirts for a gay pride festival hosted by the 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then filed a complaint against him, and two years thereafter, the 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Human Rights Commission ruled that the law requires Adamson to print shirts even if the messages printed on it violate his religious conscience.

Adamson, with Alliance Defending Freedom, filed an appeal with the Fayette Circuit Court, which sided with Adamson. Then the commission appealed to the Kentucky Appeals Court, which affirmed the circuit court ruling.

"People often ask me why I made that decision," Adamson told Fox News. "Here is what I tell them: I will work with any person, no matter who they are, no matter what their belief systems are. But when they present a message that conflicts with my religious beliefs, that's not something that I can print. That's the line for me."

Adamson had previously declined to print shirts for other customers based on their messages, such as those that were violent or sexually explicit.

Meanwhile, the Lexington Human Rights Commission expressed it would file an appeal to the Kentucky Supreme Court.

"I think we just wanted to fight on," Bob Orbach, who chairs the commission, told WEKU. "We wanted to go as far as we could go with this because in principal we believe we are right."

"This ruling is not about free speech, it is about how LGBTQ+ persons are treated in their communities every day, as second class citizens," said the 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

Two Christians Released from Sudanese Prison

Human rights groups still express concerns about religious persecution in Sudan

Two Christians, including one pastor, who were imprisoned in Sudan since 2015 have been released by a presidential pardon on Thursday (May 11).

Rev. Hassan Abdelrahim Tawor of the Sudanese Church of Christ, and Abdulmonem Abdumawla from Darfur were both serving a 12-year sentence for "inciting hatred" among religious groups, espionage,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and helping a Czech missionary named Petr Jasek, who was imprisoned and sentenced to life in prison prior. Jasek was released from prison on presidential pardon in February.

They were also suspected of having ties to rebel groups in Sudan, as many members of the Sudanese Church of Christ (SCOC) have ties in an area where there is currently an insurgency. Abdumawla also had been raising funds to help provide medical treatments for a friend who had suffered wounds during a protest, Morning Star News reports.

Pastor Tawor's wife expressed gratitude for her husband's release.

"We thank God for his release, that is all I can really say for now," she told Morning Star News.

Advocates from human rights groups also celebrated the two Christians' release, but also noted the need for a complete en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We celebrate Sudan's decision to pardon Reverend Hassan Abduraheem Tawor and Abdulmonem Abdumawla from their wrongful prison sentences; however, we cannot overlook the eroding state of religious rights in Sudan as their government overtly oppresses Christianity by demolishing church properties and imprisoning Christians," said Daniel Harris,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s regional manager.

"We strongly encourage Sudan to recognize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that Christians have and to work to protect rather than suppress those freedoms," Harris added.

Mervyn Thomas, the chief executive for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said that the two Christians' incident highlights the group's "profound concerns regarding the rule of law in Sudan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which pursued the case against them."

Just days before their release, the Sudanese government destroyed the very church at which Tawor had been serving, called the Sudanese Church of Christ in Soba al Arabi. The church was also the last church standing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e ICC. The Sudanese government expressed it plans to continue closing the doors of more churches.

Other well-known cases of Christians being imprisoned in Sudan include those of Meriam Ibrahim, the Christian mother who refused to convert to Islam, and Pastors Michael Yat and Peter Yen, who were released after more than seven months in prison.

"It's very good news, and I am sure people rejoicing this moment as they did when they heard about my released [sic], I am so thankful for the gift of love and prayers," Ibrahim told the ICC.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빚,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닫게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지도자 양육 대화 강좌 - 20시간 수강을 마치신 분께 대화지도자 수료증 발급

참가비 : $200 (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일시(1차)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2차) : 2017년 6월 1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3차) : 2017년 6월 8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4차)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주관 :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주최 : 기독일보**

아름다운 **대화기술**